'가성우역' 유전자 진단키트 국내 첫 상용화

검역본부, 8시간 내 판별 가능… 가축 살처분 최소화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악성 가축전염병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국내 최초로 유전자 진단키트를 상용화했다.

이번 진단키트는 (주)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현장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역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성우역은 염소와 면양 등 반추가축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 시 고열·기침·설사·침 흘림 등의 증상을 보이며 대부분 폐사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발병 사례가 없지만, 몽골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 연구를 추진, 가성우역 유전자 감별 정밀진단 키트를 완성했다. 국내에서는 실제 임상시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바이러스 샘플을 도입하고 임상실험을 거쳐 올해 10월 정식 제조허가를 획득했다.

기존 해외 진단키트는 가성우역 감염 여부만 판별할 수 있어 바이러스 유형(형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키트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Ⅳ형' 유전자를 추가로 식별할 수 있어, 향후 국내 발생 시 야외 감염주와 백신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살처분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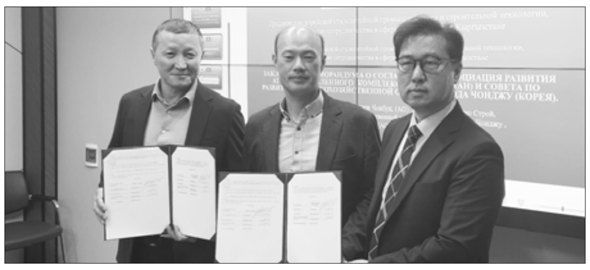
Ⅳ형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유행 중이며, WOAH 권고 백신인 Ⅱ형 백신은 모든 유형에 유효하다.

또한 기존의 '전장 유전체 분석법'이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돼 방역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번 진단기술은 8시간 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방역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가성우역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해 말 '가성우역 긴급행동지침'을 제정, 가축방역관과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긴급 백신 비축을 완료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진단키트 상용화로 가성우역이 국내에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백신주와 야외주를 감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가축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는 28일 카자흐스탄의 핵심 경제 단체인 Parasat 기업인 연합(Parasat Entrepreneurs Alliance, 의장 Pak O.A.)과 에너지 및 원자력 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열병합·원전 등 대형 인프라 구축 협력

전북테크노파크, 카자흐스탄 Parasat 기업인 연합과 MOU 체결

전북테크노파크는 28일 카자흐스탄의 핵심 경제 단체인 Parasat 기업인 연합(Parasat Entrepreneurs Alliance, 의장 Pak O.A.)과 에너지 및 원자력 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에너지 산업의 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발전소 설계·시공 △건설 자재 및 장비 공급 △기술 교류 및 인력 양성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열병합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원전 및 에너지 시설 건설 모델을 발굴해 중장기적인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우수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며 "기술이전과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 산업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지역 내 에너지 및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은, 최고 연 2.80%… JB 1·2·3 정기예금 특별금리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디지털 전용 상품인 'JB 1·2·3 정기예금'의 특별 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본금리 연 2.40%에 더해,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2.8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전북은행 정기예금 보유 이력이 없는 첫 거래 고객에게 연 0.30%, △5천만원 이상 가입 시 연 0.1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해 최대 0.40%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총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판매된다.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고, 전북은행 모바일뱅크 '쏙뱅크(SOK Bank)'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단, 판매한도 조기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투자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고객들이 **합리적인 금리와 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JB 1·2·3 정기예금'은 자동 재예치 기능을 갖춘 디지털 전용상품으로, 재예치 횟수에 따라 0.1~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된다. 원금과 이자가 함께 재예치돼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자세한 상품 내용과 가입 조건은 전북은행 모바일뱅크 '쏙뱅크' 또는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 농·건설기계기업, 중앙아시아서 430억원 규모 수출 성과

에코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수출계약 2건·MOU 2건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농·건설기계기업 수출연계형 글로벌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도내 기업 ㈜에코팜이 최근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총 3,000만 달러(한화 약 43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2건과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한 것이다.

㈜에코팜은 지난 10월 23일 우즈베키스탄, 24일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계약을 맺었으며, 협약에는 △한국형 스마트팜 시스템 및 시설원예 기자재 보급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농산업 발전 인력 교류 및 교육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협력 등이 포함됐다.

전주에 본사를 둔 ㈜에코팜은 스마트팜 및 시설원예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중앙아시아·중동 등 해외시장 개

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시회 참가와 수출상담회를 추진해왔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수출상담회, 마케팅 활동 등 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동시에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시장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을 병행해 실제 계약 성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코팜과 에코건설㈜, 전주시 농산업발전협의회는 우즈베키스탄 Next Agro Hitech과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으며, 키르기스스탄 Agroprom과의 협력 MOU, 그리고 Most Plus LLC·Atalyk Group과는 각각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전북 기업의 기술력과 현장 경험이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도 "중앙아시아는 농업과 원예 산업의 현대화 수요가 높아 전북 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겨울철 가축관리 당부

환기·단열 점검… 한파 피해 예방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형태와 축종에 맞는 환경 관리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창형 축사는 겨울철 보온을 위해 환기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지만, 환기가 부족하면 축사 내부에 유해가스와 습기가 쌓여 가축의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 농진청은 축종과 사육 단계별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내부 공기 교환과 오염물질 배출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환기 시에는 입기구 각도를 조절해 외부의 찬 공기가 천장 부근의 따뜻한 공기와 섞인 뒤 퍼지도록 해야 한다. 찬 공기가 가축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 체온 저하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열 상태 점검도 필수다. 지붕과 벽면, 이음새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이 있는 부분은 우레탄 폼 등으로 보수하거나 단열재를 교체해 효율을 높인다. 개방형 축사는 찬바람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커튼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는 사일리지 등을 쌓아 방풍벽을 설치하면 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노후 축사는 지붕과 기둥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 시 버팀목을 설치해 구조를 보강한다. 또한 겨울철 보온등·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량이 늘어나므로, 전기 배선, 차단기, 전원부 상태를 미리 확인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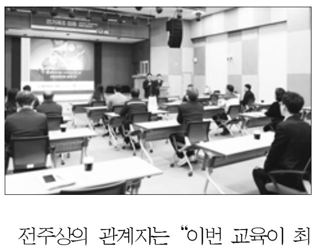
전주상의, 회원사 맞춤형 산업안전교육

중대재해 예방·안전경영 문화 구축 역량 강화에 초점

전주상공회의소는 28일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와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역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직장 내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교육은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호형 박사와 김대진 수석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서, 안전경영문화 구축, 전사적 안전경영 이해,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례 진단 등 경영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안전경영문화 컨설턴트 2급 자격 시험도 병행해 실질적 역량 인증 기회가 제공됐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안전경영문화 이해와 현장 적용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인사, 노무, 회계, 산업안전, AI, 환경, 고용 등 기업 경영 필수 분야 교육과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원사 경쟁력 강화와 경영 역량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